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

치과의원만 유일하게 감소

심평원 통계지표 발표

2008년도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치과외원의 기관당 진료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외원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은 지난날 24일 '2008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치과과문의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는 7월6백53만여원으로 2007년도 7월7백10만여원에 비해 0.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를 일로 환산하면 치과과문의 한 기관당 일 평균 6백41만여원의 보험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에 비해 치과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007년 대비 2008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입에서는 약진한 모습을 보였다.

치과병원의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는 3억6천9

백68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평균 3천800만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방문일수를 비교한 결과 치과 의원은 전년 대비 2008년 0.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과병원은 8.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 경우 전년 대비 2008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은 0.65% 증가, 한방병원은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 총 요양급여비용은 치과여원이 3.1%, 치과병원이 0.2%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3.5%에 비해 0.2%p 감소한 수치로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 4.8%, 2003년 4.6%, 2004년 4.4%, 2005년 4.1%, 2006년 3.8%와 비교할 때 치과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비율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정미 기자 imahn@kda.or.kr

공단 4대 보험료 통합 징수 확실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확실히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율 6

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두 법안이 보건복지가족부를 통과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4대 보험료 통합 징수가 사실상 확실시 된다.

두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의 법체계 자구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단이
불합 직수하는 박이에 반발하는

이 퇴장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4대 보험료 징수 통합 문제는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와 국세청 중심 일원화를 통한 징수공단 설립 방안 등 여러 방향이 제시돼 17대 국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왔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약 1년간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 작업에 착수, 오는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 서비스를 착수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카드수수료를 인하 이유

경기불황이 재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해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가 매우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8년도 연간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의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중 약 절반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지출 중 약 절반이 전년도에 비해 7.4%의 감소와 지난해는 0.8%였다.

가계경기가 상당히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2007년도 연간 월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비해 6.1%였고 2008년도가 12.1%인 것에 비하거나 식료품이 2007년도 2.2% 증가율에서 2008년도 5.3% 증가율인 것에 비하면 2008년도 보건의료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불일치에는 또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그것이다. 특히 치과외과 분야의 경우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니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치과의원만 기관당 진료비가 2007년도에 비해 0.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원이 3.47% 증가, 한의원이 0.65% 증가, 한방병원이 1.7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치과의원의 증가는 매우 평범하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다른 여타 분야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불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치과분야에 더욱 거센 현파가 불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황의 여파가 보건의료 분야와, 특히 치과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날 24일 국회에서 있는 '보건의료의 통합리더 카드' 수습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경쟁업체보다 더가오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을 병원급인 15%~2%보다 낮은 1%대로 낮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료계는 건보 진료비에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통제를 받는 이상 적자 상태에 있는 의료기관에게 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미국지외의 필요성을 주장했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압박에 병원급보다 높아야 하는 의원급 카드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조정해야 마땅하다. 건보수가를 국가에서 통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면서 이러한 부담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Sports Dentistry
www.sportsdent.com

마우스가드 제작 연수회

“연수회에 참여하시고 개인에게 맞는 마우스가드도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체이퍼질, 하절, 겨울, 봄철과 같은 스포츠 활동 중 생기는 상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보호장비의 구비나 상대적으론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부속구멍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 안전장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되며, 비록 인식부족이 운동 중 생기는 외상을 동반한 부상에 사망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스포츠에 의한 상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그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 태프리스의 향상, 건강 유지를 위한 구강관리 등 여러 면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와 대외로 치료적일 것입니다. 이런 실습세미나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이용하여 vacuumum form에 의한 방법과 라미네이트에 의한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이를 편리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현행법령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안창영

협찬 신담탈(주)